



온누리 자비 깃들길...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내달 2일)을 앞두고 28일 오후 아기부처, 용, 코끼리, 불탑 등 불교를 상징하는 형형색색의 화려한 장식을 한 연등행렬이 광주공원~금남로~문화전당 앞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SI 추정환자 국내 첫 발생

〈돼지인플루엔자〉

멕시코 다녀온 경기 50대 여성...양성 가능성 높아

돼지 인플루엔자(SI) 인체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의심된 50대 여성이 '추정 환자'로 판명됐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의심 환자에 대한 인후도말검체 채취 검사 결과 돼지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추정환자로 진단됐다"고 발표했다.

재난단계 '주의'로 격상

정부는 북중미발 돼지 인플루엔자의 세계적 유행 조짐과 관련, 국가적 위기상황을 단계적으로 분류한 '국가재난단계'를 현재 '관심'에서 '주의'로 1단계 격상했다.

가운데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가 발견돼 감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H1N1 H3 인플루엔자는 음식으로 나타나 아직 감염됐다고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 감염이 최종 확인되면 '확진 환자'로 진단된다.

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경기도에 사는 51세 여성으로 지난 19일부터 멕시코 시티 남부 모렐로스 지역을 여행하고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37.7℃의 고열과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 보건소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근원은 현지시간으로 19일께 멕시코 시티 공항에서 환자 일행을 태운 운전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부는 이 환자를 국가 지정병원 음압격리 병상(기압이 외부보다 낮아 바이러스의 유희를 차단할 수 있는 병실)에 격리 입원시켜 치료 경과를 관찰 중이다.

또한 환자의 검체에 대해 최종 확진 검사를 실시 중이며, 이와 별도로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검체를 보내 확진을 의뢰했다. 국내에서의 확진 결과는 빠르면 2주 후에 나올 전망이다. 본부는 또 이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탄 탑승객과 승무원 315명 전원에 대해 인플루엔자 증상 유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탑승객 중 이 환자가 앉았던 자리의 반경 2m 내에 있던 사람 8명, 이 환자와 함께 사는 사람 40명에게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투여했다. /연합뉴스

## 전남 땅없어 기업 발돋된다니...

여수 등 입주 희망 70여 업체 못받아...산업단지 추가 확충 시급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 기업 유치 노력 덕에 전남지역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박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여수와 광양 등 전남 동부권의 경우 입주 및 증설을 원하는 업체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산업용지가 턱없이 부족해 수많은 기업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남 동부권은 오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의 SOC가 크게 확충됨에 따라 물류 환경도 대폭 개선돼 기업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성장 잠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추가 산업단

지 조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전남도와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 전남지역 8개 일반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평균 91%에 이르고 있다.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 ▲순천 해룡(20만26천㎡) ▲여수 오천(5천㎡) ▲순천 일반(43만9천㎡) ▲목포 삼진(23만1천㎡) ▲나주 문평(25만㎡) ▲영암 삼호(234만3천㎡) 단지는 100% 분양이 완료된 상태고, 여수 울촌 1 산단(296만2천㎡)도 이미 98%가 분양됐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나주산단(20만9천㎡)은 4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국가 산업단지의 경우 영암 대불산단, 광양 산단, 여수 산단의 분양률

은 이미 100%를 넘어섰으며, 여수산단의 경우 산업용지가 부족해 지난 1990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추가로 781만4천㎡ 면적의 확장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벌써 97%가 분양됐다.

이로 인해 여수산단 등 동부권 산단 입주나 증설을 원하는 기업은 70여 곳에 달했으나, 산업용지가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 타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를 감안해 국토해양부가 여수공항 인근에 울촌 2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지만, 광양컨테이너부두 3단계 준설로 투기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산업용지 공급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시급한 수요

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수상공회의소는 최근 포화상태에 달한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여수시 상암동 일대를 산단 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여수산단 진입로에 위치한 여수 상암지구는 여수 국가 산단 진입도로(광양~묘도~여수산단)가 완공될 경우 원활한 물류 여건을 갖추게 돼 기업유치 적지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낮은 가격의 공장용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세계 경제 불황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된 상태에서 추가로 산단을 조성할 경우 자칫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병식 여수상의 조사부장은 "울촌 2산단의 6개 블록 중 절반이라도 산업용지로 개발해달라고 건의했으나, 개발비용이 만만치 않아 불투명한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광양~묘도를 잇는 교량이 완공될 경우 물류수송 적지로 꼽히는 상암지구를 국가산단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갯녹음, 진도~흑산도 까지 확산

바다의 사막화 초래

바다가 사막처럼 변해 황폐화되는 갯녹음 현상이 진도~흑산도 바다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 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는 지난해 5월부터 전라남도 모든 연안을 대상으로 갯녹음 발생해역을 조사한 결과 2006년 거문도와 소리도 해역(70ha)에서만 발견되었던 '갯녹음 현상'이 서북쪽으로 확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갯녹음이 진도~흑산도 바다까지 번졌고 특히 여수와 진도권역 등 주로 외해에 속한 27개 어장의 갯녹음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갯녹음 현상은 어류, 패류에 유용한 해조류 군락이 감소하고 이용 가치가 없는 흰색 산호류로 뒤덮이는 바다의 사막화 현상을 말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침침산중 도청별관 해법

법원이 옛 도청 별관 철거 반대 농성 중인 5·18 단체에 대한 퇴거조치 등 강제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지역 사회에서 '별관 보존-철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찬·반 입장만 덧붙일수록 있을 뿐 지역의 여론을 한데 모아 상생의 방안을 찾는 노력은 실종돼 문화전당 건립사업의 장기 표류가 우려되고 있다.

이명만 민족문화작가회의 고문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은 28일 "세계적인 상징이 될 민주성지는 원형대로 보존돼야 한다"며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원로들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 시민은 오월성지를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 이른 시일 안에 '단일안'을 도출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5·18 단체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및 방해물 제거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치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고엽제전우회 광주지부 회원 100여명은 옛 전남도청 맞은편 상무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별관 보존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 자체가 좌초될 것이다"며 "공사를 원안대로 조속히 진

강제집행 앞두고 철거 찬·반 논란 증폭

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2차 강제집행을 예고했던 광주지법은 집행관을 보내 농성장 철거의 사전 단계로 옛 도청을 방문, 현장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 54회 호남예술제 오늘 개막 ▶관려기사 13면

### 어린이날 기념 치아사랑

#### 사생대회 및 백일장

2009년 4월 29일(수) 오전 10시  
1. 목적: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한 캠페인  
2. 대상: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3. 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 3층 대회의실

2009년 4월 29일(수) 오후 2시  
1. 목적: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한 캠페인  
2. 대상: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3. 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 3층 대회의실

2009년 4월 29일(수) 오후 4시  
1. 목적: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한 캠페인  
2. 대상: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3. 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 3층 대회의실

2009년 4월 29일(수) 오후 6시  
1. 목적: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한 캠페인  
2. 대상: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3. 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 3층 대회의실

문의: 광주광역시 치과협회, 광주광역시 치과대학  
주최: 광주광역시 치과협회, 광주광역시 치과대학  
후원: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광주광역시 시민단체